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22일 '사상 최고' 91.48% 득표...중앙선관위, 당선증 수여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자승스님이 당선됐다.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실시된 총무원장 선거에서 290표(득표율 91.48%)를 얻어 새로운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호 2번 각명스님은 3표, 기호 3번 대우스님은 4표를 얻었다. 기권은 6표, 무효는 14표였다. 이날 선거에는 전체 선거인단 320명 가운데 317명이 참여해 투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섭)는 개표를 완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최다 득표자인 자승스님을 당선인으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자승스님은 "오늘 총무원장으로 뽑아주신 선거인단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혼신을 다해 종단의 중흥 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장을 나온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곧바로 조계사 대웅전에 들러 부처님 앞에 삼배했다. 이후 다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자리를 옮겨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총무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종도 모두가 서로를 믿고 북돋우며 한 마음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승스님은 "32대 집행부의 숙신사업을 이어받아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자승스님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소감과 향후 종단 운영방향 등에 관해 밝혔다.

스님은 당선소감문에서 "소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며 "수행 중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에게 문중과 교구를 떠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안정과 화합'이라는 토대를 구축한 제32대 총무원을 계승해 '도약과 중흥'이라는 결실을 맺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을 것"이라며 "입기 내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이라

고 약속했다. 자승스님의 임기는 오는 10월 31일부터다.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1954년생으로 조계종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4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0대부터 14대까지 중앙총회의원을 5차례 지냈다. 제14대 전반기 중앙총회의장과 11대 중앙총회 사무처장, 총무원 총무부장 및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재단법인 은정 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원로회의, 자승스님 '인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는 총무원장 선거 다음날인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34차 회의를 열고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자승스님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개회사에서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가장 원만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졌다"며 "새로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앞날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모든 종도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중정예하와 원로대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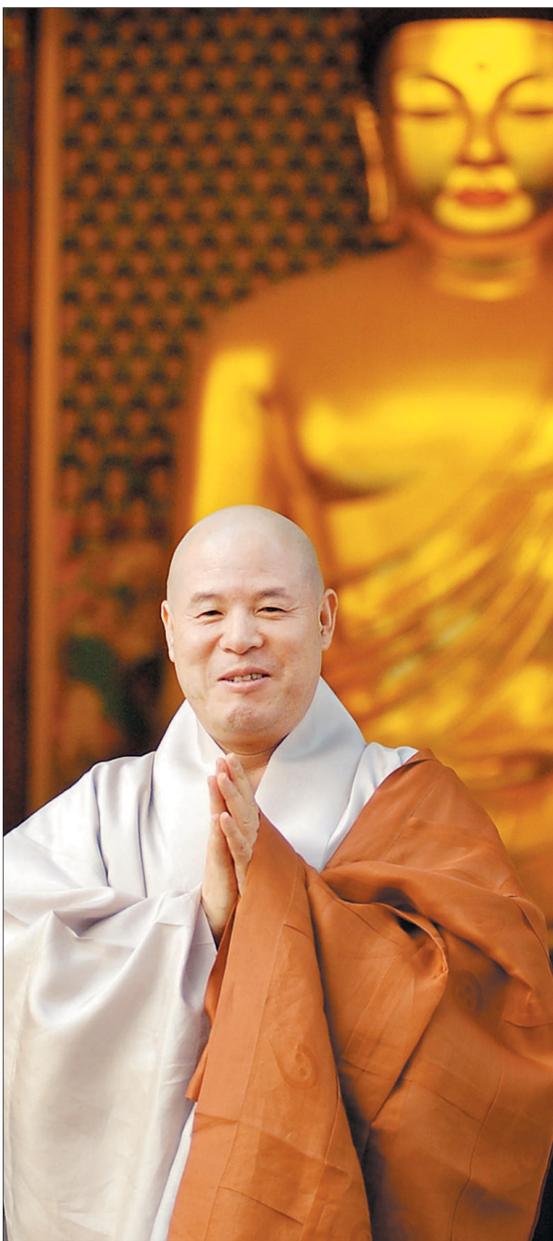
스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종단 중흥 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장 종산스님은 이날 회의에서 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인사말에서 "입기 동안 종단에 큰 힘을 내지 않고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중정예하를 비롯한 원로대덕 스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1월 5일 취임 법회 예정

한편 총무원장 취임법회는 오는 11월 5일 오전에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장영성 기자 fuel@bulgyo.com



'종단 중흥' 책임 맡은 지도자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자승스님이 서울 조계사 대웅전을 참배한 뒤 "혼신을 다해 종단의 중흥 불사를 추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대중들에게 감사의 할장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뉴스분석 향후 조계종 방향

화합·공의 내세운 종단운영 '주목'

예상했던 압승이다. 91.48%. 경선으로 치러진 역대 총무원장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사실 지난 9월 29일 후보 추대식부터 집착했던 당선이다. 중앙총회 내 모든 정책모임과 19개 교구 본사가 자승스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단순계산해도 이때 벌써 260표에서 270표를 확보한 셈이다. 게다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스님이 출마를 번복하거나 포기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번수였던 승적 정정에 관한 의혹마저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자, 대세를 따르자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나머지 후보인 각명스님과 대우스님의 경우 종단 활동이력이나 지명도, 조직력 면에서 상당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직전부터 종도들의 관심은 당선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내느냐로 쏠렸다. 결국 뚜껑은 열렸고 이변은 없었다.

공약으로 내건 핵심사업인 승려노후복지법 제정, 해외교구 설립 등은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총회의 도움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 곧 중앙총회의 전면적 연대로 중무집행은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중앙총회의장과 총무부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행정역량과 이해조율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다만 조만간 단행할 총무원 집행부 및 직영사찰 주지 인사에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선을 위해 지원이 출마를 번복하거나 포기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번수였던 승적 정정에 관한 의혹마저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자, 대세를 따르자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나머지 후보인 각명스님과 대우스님의 경우 종단 활동이력이나 지명도, 조직력 면에서 상당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직전부터 종도들의 관심은 당선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내느냐로 쏠렸다. 결국 뚜껑은 열렸고 이변은 없었다.

공약으로 내건 핵심사업인 승려노후복지법 제정, 해외교구 설립 등은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총회의 도움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 곧 중앙총회의 전면적 연대로 중무집행은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중앙총회의장과 총무부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행정역량과 이해조율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다만 조만간 단행할 총무원 집행부 및 직영사찰 주지 인사에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선을 위해 지원이 출마를 번복하거나 포기하면 9부 능선을 넘었다. 마지막 번수였던 승적 정정에 관한 의혹마저 근거가 없다고 판명되자, 대세를 따르자는 분위기가 굳어졌다. 나머지 후보인 각명스님과 대우스님의 경우 종단 활동이력이나 지명도, 조직력 면에서 상당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선거 직전부터 종도들의 관심은 당선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를 얻어내느냐로 쏠렸다. 결국 뚜껑은 열렸고 이변은 없었다.

공약으로 내건 핵심사업인 승려노후복지법 제정, 해외교구 설립 등은 종단 입법기구인 중앙총회의 도움 없이는 성사되기 힘들다. 곧 중앙총회의 전면적 연대로 중무집행은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중앙총회의장과 총무부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행정역량과 이해조율 능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광고
불교신문 2010 신춘문예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0 불교신문 신춘문예'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신진작가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기대합니다.

접수기간 : 2009년 11월 16일(월)~12월 16일(수)까지
공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많은 신진작가
공모분야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시조 - 각 5편
동화 - 원고지 30매 내외, 평론 - 원고지 60매 내외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작 선정
상 금 : 단편소설 45만원, 동화/평론 각 35만원, 시/시조 250만원
당선작 발표 : 2010년 1월 1일 불교신문 신년특집호
접수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5층 전법회관 불교신문 사 신춘문예담당
문의 : (02)730-4488(신춘문예 담당)
불교신문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금강불교예술회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 불경금액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액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음도:복장,의식,상량식,영가천도,불사)

제182회 중앙총회 개회

11월 5일부터 15일 회기로 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기 중앙총회에서는 △불기 2554년(2010) 예산안 승인 △중앙총무기관,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중정감사 △선출 동의 등의 인사 △종법 제·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 장영성 기자 fuel@bulgyo.com

33대 총무원장 종책 출마에서 당선까지
총무원장 권한과 역할 **2면**

자승스님이 걸어온 길
당선인터뷰·수행이력 **3면**

새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각계반응·이모저모 **4면**

“국민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삼보(歸命三寶) 하옵니다. 존경하는 중정예하와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범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소납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종단과 나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귀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 문중과 교구를 떠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안정과 화합'이라는 토대를 구축한 제32대 총무원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이라는 결실을 맺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모금의 물음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의 고사를 거름삼아 입기 내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납은 한국불교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로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수행 중풍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체대비(同體大悲)·자리아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4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이하 총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행정의 공백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철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책과 관심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3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합장